

안재성의 『파업』 연구*

- 내포적 총체성의 결핍과 인물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

박규준**

|| 차례 ||

1. 서론: 노동소설의 연구 시선
2. 내포적 총체성의 결핍과 작가의 개입
3. 상징질서와 인물의 의미 관계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후반 노동소설의 대표적 작품인 안재성의 『파업』에 형상화된 총체성의 결핍과 인물의 의미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파업』의 총체성의 미약함은 작가의 개입으로 텍스트에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그 방식은 텍스트에서 사건 상황에 대한 작가의 직접적 설명, 지식인 활동가에 대한 관념적 묘사, 서사 결합의 도식성으로 나타났다.

『파업』의 상징질서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인물의 의미 관계는 장상대, 김진영, 김동연을 통해 형상화되었다. 상징질서를 절대화한 자본가 계급인 장상대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과잉적 억압과 범질서 파괴로 형상화되었고 상징질서에 상징화되지 않고 상상적으로 초월하는 노동자 계급인 김진영은 윤리적 행위인 죽음으로 윤리적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상징질서를 현실적으로 전복하는 노동자 계급인 김동연은 윤리적 행위를 반복하는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와 같은 『파업』의 인물의 의미 관계는 당대 사회현실의 대립적 계급관계와 새로운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9896)

**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유토피아를 지향했던 노동현실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주제어 : 인재성, 『파업』, 총체성, 인물의 의미, 절대성, 법질서, 초월성, 윤리적 행위, 현실성, 파업

1. 서론 : 노동소설의 연구 시선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후반 노동소설의 대표적 작품인 인재성 『파업』의 내포적 총체성의 결핍을 규명하고 인물의 의미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노동소설은 근대의 상징 질서인 자본에 의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동자 계급의 실천적 행위를 형상화한다. 1970~80년대 자본은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 경제성장주의, 군부독재주의 등을 통해 구체적 현실 속에 작동했다. 이러한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삶과 계급의식의 성장과정을 형상화한 것이 노동소설이다.¹⁾

상징질서의 억압과 모순에 저항한 노동자의 삶을 형상화한 노동소설은 내적 구조로 대립서사를 함의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소설에 대한 평가는 대립서사에 대한 형상화 수준과 관련된다. 노동소설의 대립서사는 현실 반영과 문학 운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로 연결되었지만 예술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원인이기도 하다.

1) 박규준은 1970~80년대 노동소설을 지배 이데올로기와 그에 대립·저항하는 노동 계급의 주체 성장서사로 규명하였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반공이데올로기, 경제 성장이데올로기, 교육 이데올로기로 구분하였으며,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새로운 주체를 정립하는 과정은 계급 각성의 서사, 죽음의 서사, 성장 서사로 구분하여 노동소설을 규명하였다(박규준, 『한국 현대 노동소설 연구 - 이데올로기와 성장서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물론 예술성 측면의 부정적 평가라 할지라도 문학의 운동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문학의 운동성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작품에 형상화된 대립서사의 예술성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예술성 측면에서 리얼리즘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예술성에 대한 비판 중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오창은²⁾처럼 “작가들이 보고자 했던 것들(이를테면 노동, 파업, 조직 내의 갈등 등)만 기술됨으로써, 1980년대 노동소설은 ‘투쟁하는 노동’만 보여주면서도 ‘생활하는 노동’을 은폐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진호³⁾처럼 노동“주체의 일방적 시선과 배타적 신념에 바탕을 둔 것”에 의해 타자인 “자본가들을 인간 이하의 악한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그렸다는 것”이다.⁴⁾ 전자는 작품 전체로 볼 때 대립서사의 과잉이고 후자는 대립서사 내에서 대립 주체의 불균형이다. 이 문제는 리얼리즘의 중심 개념인 총체성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병훈⁵⁾은 정화진과 안재성, 김하경의 작품을 분석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성을 노출함으로써 작가의 현실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정환⁶⁾은 1980년대

2) 오창은, 『1980년대 노동소설에 대한 일고찰』, 『어문연구』51, 어문연구학회, 2006, p.155.

3) 강진호, 『1980년대 노동소설과 근대성의 딜레마 - 주체의 낙관적 의지와 배타적 신념』,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 2004, p.262.

4) 오연희도 이러한 “주체의 일방적 시각”이 1980년대 노동소설의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 많고 선한 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잘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악한 존재로 유형화되는 등 세계의 중층성 내지는 다면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면서 현실의 도식화를 초래했다.”(오연희, 『노동소설의 새로운 모색』, 『어문연구』54, 어문연구학회, 2007, p.303).

5) 이병훈, 『노동 장편소설의 최근 변모와 성과가 지니는 현재적 의미』, 『한길문학』 1991년 여름호, 한길사, 1991, pp.90-91.

6) 조정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종말 이후의 노동문학』, 『실천문학』 봄호, 실천문학사, 2000.

“노동문학 작품들이 흔히 제시하는 인물들은 이상화된 나머지 작가 자신의 당파성을 ‘상황과 행위 자체로부터 저절로’ 드러내기보다 구호와 도식을 통해 원칙적·명시적으로 표명하는 수단으로 떨어지”고 “구호와 도식이 아니라 ‘개별화를 통해 드러나는 전형적 상황과 전형적 인물’이 리얼리즘의 지향이라고 볼 때 당시의 노동문학은 그 수준을 만족할 만큼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1980년대 노동소설은 총체성 획득에 실패했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1980년대 노동소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이분법으로 재단하여 청산주의나 환멸주의적 시각으로 연결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오창은⁸⁾은 환멸의식으로 노동소설을 “역사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하며, “80년대 노동소설에 나타나는 노동자 계층의 역사적 경험의 서사화, 곡선적이고 굴곡적인 인간사의 형상화는 분명한 미적 성취로 재해석되고 재평가돼야” 한다고 말한다. 고영직⁹⁾은 1980년대 노동문학에 대한 현재적 의미로 “객관 현실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현실과 예술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했던 민중·노동문학의 시도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응하는 미학과 윤리학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텍스트”가 된다는

7) 작가의 당파성에 의해 작품의 도식화, 미학성의 결여로 평가한 연구로는 하정일, 김복순이다. 하정일은 1980년대 노동소설이 저항서사만 남고 유토피아 충동이 거세되었다고 평가했다(하정일, 『저항의 서사와 대안적 근대의 모색-산업화 시대의 민족문학』, 『1970년대 문학연구』, 민족문학사 연구소, 소명, 2000).

김복순은 1980년대 노동소설을 도식성, 계급적 환원주의, 이념적 편향주의, 배타적인 적대주의, 상투적이며 사물화 되어 있는 인간상을 형상화 했다고 평가했다(김복순, 『노동자의식의 낭만성과 비장미의 ‘저항의 시학’-70년대 노동소설론』,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 2000).

8) 오창은, 앞의 글, p.168.

9) 고영직, 『이론신앙을 넘어, 사실의 재인식으로-1080년대 민중, 노동문학론에 관한 단상』, 『실천문학』 겨울호, 실천문학사, 2005, pp.76-87.

측면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노동소설에 대한 연구는 문학의 운동성과 예술성 그리고 그 논쟁의 원인이기도 한 미학적 관점에서의 리얼리즘의 성취와 관련된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문학사적, 미학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가 텍스트 자체에 대한 정치한 연구보다 문학의 운동성과 예술성 간의 논쟁 속에서 연구 시각이 한정된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1980년대를 청산과 후일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분위기 속에서 1980년대 거대서사의 중심에 있었던 노동문제를 형상화한 노동소설은 최근까지 연구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성과가 이분법적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노동소설에 대한 관심을 후퇴시키는 듯 하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소설은 한국문학사에서 1920년대, 195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활발히 창작되었던 것처럼 사회변혁 시기에 반복적으로 생산되었던 부정할 수 없는 양식이었다. 그래서 노동소설에 대한 극단적 이분법 논쟁으로 환멸주의, 청산주의 등과 같은 비역사적 연구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소설의 미적 창작방법인 리얼리즘에 대해 텍스트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증거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파업』의 표현적 측면에서 총체성이 미약하게 된 요소인 작가의 개입 양상과 내용적 측면에서 총체성을 형상화한 인물의 의미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2. 내포적 총체성의 결핍과 작가의 개입

1980년대 후반의 노동소설은 현실 반영이라는 리얼리즘적 창작방법이 문단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부분 창작되었다. 그래서 철학

적이고 사회과학적 이념에 호명된 작가들에 의해 계급투쟁이라는 목적지향적 의식에서 노동현장의 노동 여건과 노동현장의 파업 투쟁 그리고 민주노조 건설과정이 중심 소재로 다루어졌다. 이것은 1980년대의 진보 진영의 역사철학적 기반이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인식하는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소설의 내면에 흐르는 기본적 서사는 대립서사였다.

노동소설의 대립서사가 1970년대는 피억압적 상황이나 소외를 노동자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었다면 1980년대는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자본집단과 노동집단의 대결을 집단적 차원에서 형상화했다. 지배이데올로기의 억압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저항은 1970년대의 자유민주주의적 개인 저항에서 1980년대는 민중해방, 노동자 해방적 집단저항으로 나타났다.¹⁰⁾ 그리고 대립서사의 대립 갈등과 투쟁과정을 통해 지배의 억압성과 피지배의 저항성을 재생산하는 성장서사로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노동소설의 기본적 서사는 『파업』과 무관하지 않다. 작가 안재성은 실제로 1980년 대학에서 제적당한 후, 노동운동단압 저지투쟁위원회, 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하는 등 광산지역노동운동을 비롯한 상당한 노동운동 경력 소유자이다. 1986년 <현장>에 『동지』를 발표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 단편 『바깥세상이 보인다』(1988)와 지역노동에 대한 보고서인 실록 『타오르는 광산』(1988)을 발표하였으나, 『파업』이 사실상의 등단작이자 대표

10) 1980년대는 사회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변하고 자본은 거대화된다. 그리고 민중의식의 성장으로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과 어용적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저항했으며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조직인 민주노동조합을 건설한다. 특히 군부독재의 연장에 대한 투쟁은 6·29선언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정점에 달한다. “1987년의 노동쟁의는 과거 선진자본주의 여러 국가에서의 ‘제1차적 노사분규’와 달리 동시대의 후기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폭발적이고 강렬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김동춘,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역사비평사, 1995, p.17).

작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후 장편소설 『사랑의 조건』(1991), 『피에타의 사랑』(1992) 등을 발표함으로써 방현석, 정화진과 함께 노동문학의 대표작가로 인정받아 왔다. 이처럼 작가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파업』은 작가의 경험적 실천을 통해 나온 체험 소설이라 할 수 있다.¹¹⁾

『파업』은 1986년 후반부터 1987년 6월 항쟁 전야까지 대규모 철강 공장인 대영철강에서 벌어지는 노동 집단과 자본 집단으로 구성된 인물들 사이의 계급 대립을 형상화하고 있다. 노동 집단을 구성하는 인물은 평범한 노동자에서 노조위원장으로 성장하는 김동연, 복직투쟁과정에서 분실 자살하는 김진영, 그리고 동지회에 가입하여 적극적 노동운동을 실천하는 이상섭, 김영춘, 서동석, 최보선, 손영원, 박팔봉, 장영철 등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다 공장으로 위장 취업한 지식인 노동활동가인 흥기와 정기준이다. 자본 집단을 구성하는 인물은 대영철강의 자본을 대표하는 회장 장상대, 상무 장상필, 관리 집단을 대표하는 제강과장, 관리과장, 생산과장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과 갈등 극복과정을 통해 노동 집단의 성장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동지회’를 조직하여 학습을 하고, 해고 후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하면서 점점 계급의식과 투쟁성이 성장한다. 그리고 현장 노동자와 함께 파업 투쟁까지 전개하여 민주노조를 건설한다. 이처럼 『파업』은 1980년대 후반의 노동소설의 중심서사인 대립서사와 성장서사를 표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파업』의 중심 내용인 대립서사, 성장서사는 당대 현실을 반영한 노동소설의 미학적 성과인 총체성과 연결된다. 그러나 ‘장편소설을 통해 총체성을 본격적으로 제기 한 측면은 있으나 조직형성 과정에 대한 서술이 구체성을 담보되지 못하고 대화나 묘사에서 불충실한 면이 많으며, 자본가

11) 작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 임규찬의 글을 참조함(임규찬, 『1980년대 노동운동의 소설적 모형』, 『동아출판사 소설문학 대계 95』, 동아출판사, 1995, pp.594-595).

와 중간관리층에 대한 묘사가 일면적이고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¹²⁾고 평가받는다.

이처럼 『과업』도 1980년대 노동소설의 한계인 총체성의 미약함이 나타난다. 총체성의 미약함의 원인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알아보자.

루카치의 총체성 개념은 외연적 총체성이 아니라 내포적 총체성을 강조한다.

루카치는 형상화되는 삶의 단편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본질적인 객관적 규정요인들 전체 alle wesentlichen, objektiven Bestimmungen'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때에도 루카치는, 형상화된 삶의 단편이 자체로서 이해될 수 있고 추체험될 수 있도록, '삶의 한 총체성으로 나타나도록' 객관적 규정요인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의 총체성은 '외연적 총체성'이 아니라 '내포적 총체성'이다. "예술작품의 총체성은 오히려 내포적인 것이다. 그것은 형상화된 삶의 단편에 대해 결정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지니는, 전체 삶의 과정 속에서의 그 존재와 운동, 그 특질과 위치 등을 결정하는 여러 규정요인들의 자체내적으로 완결되고 마무리된 연관관계이다."¹³⁾

루카치는 총체성의 내용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는 사적 유물론과 유물변증법 관점에서 사회를 결정하는 객관적 규정 요인들을 반영해야하며 그 자체 내적으로 완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술의 표현적 측면에서는 '형상화된 삶의 단편이 그 자체로서 이해될 수 있고 추체험될 수 있도록 총체성'이 나타나야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표현적 측면에 대해 루카치는 에른스트 블로흐와의 총체성

12) 위의 글, pp.599-600.

13) Georg Lukács Werke. Bd.4. Neuwied-Berlin 1971.(Probleme des Realismus 1. Essays über Realismus(홍승용, 『루카치 리얼리즘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105 재인용).

논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상과 본질의 올바른 변증법적 통일성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남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표면구조’의 묘사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밖에서 주석을 붙이는 일 없이 형상화를 통해 묘사된 생의 단면 속에서 본질과 현상의 연관관계를 보여준다. 우리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⁴⁾

이처럼 표현적 측면에서 총체성은 ‘형상화된 것 자체만으로 독자가 이해하고 추체험’할 수 있어야하며 ‘주석을 붙이는 일 없이 형상화를 통해 묘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파업』은 대립서사와 성장서사를 통해 본질적인 객관적 규정요인¹⁵⁾인 계급 상황, 계급투쟁, 현실의 발전경향, 주체의 의식의 성장과정 등을 형상화했다. 그래서 내용적 측면에서는 총체성이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현적 측면에서 내포적 총체성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파업』의 내포적 총체성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작품에서 주석과도 같은 작가의 직접적 개입이다. 등장인물의 초점과 행위로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에서 작품 외부의 작가의 초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독자가 작품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작품 사이에 작가가 개입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독자의 사고를 지배하려는 듯한 서술이 표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작가의 개입은 독자에게 작가의 세계관을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표현된다. 그래서 『파업』은

14) G. 루카치,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홍승용(옮김), 실천문학사, 1985, p.79.

15) 객관적 규정 요인은 “계급상황 및 계급투쟁 혹은 객관적 현실의 발전경향들을 포괄한다. 또 이에는 주체들의 의식적 조직적 성장과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들이 포함된다.”(홍승용, 위의 논문, p.105).

내용적인 총체성만 남고 표현적인 총체성은 상실되어 내포적 총체성이 결핍되고 있다.

『파업』에서 작가의 개입은 사건 상황에 대한 작가의 직접적 설명, 지식인 활동가에 대한 관념적 묘사, 서사 결합의 도식성으로 나타난다.

『파업』에서 상황에 대한 작가의 직접적 설명은 작가의 세계관과 당파성이 등장인물의 인식이 아닌 작가의 직접적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

복종과 인내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찬란한 미래는 어둠 저편에 깊숙이 숨어 있을 뿐이었다.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¹⁶⁾

수십 년간 역사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던 대영제강에는 그렇게 해서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이 시작되고 있었다.(p.38)

위의 설명은 작가가 등장인물의 현실적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서술이다. 작품의 초반부로 전자는 김동연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영식의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아내 순영이와 순영이의 재취업 문제로 다투고 난 후 노동자의 암울한 일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는 흥기가 대영철강에 위장 취업하여 김동연, 이상섭, 김진영과 가까워지면서 그의 박식함과 다정한 태도로 노동자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한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두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작가가 개입하는 인식은 작품에서 묘사된 등장인물의 현실 상황과 그에 대한 인식보다 과잉적으로 작가의 미래의 시간을 예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진정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이 시작’과 같은 서술은 작품에 묘사된 상황과 시간에 대해 현실성을 퇴색시킨다. 등장인물의 갈등과 고뇌에

16) 안재성, 『파업』, 세계, 1989, p.37.

앞으로 『파업』에서 인용하는 원문은 본문에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대해 작가의 세계관에 의해 긍정적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물의 유토피아적 미래는 인물의 의식과 실천행위에서 인물 자신과 독자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작가의 직접적 설명은 작품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과도하게 서술되고 있다.

『파업』에서 지식인 활동가에 대한 관념적 묘사는 작품의 서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파업』의 첫 장면은 흥기가 대영철강에 위장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흥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사는 작품 전반부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현장 출신 노동자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작품의 중반부와 후반부까지 중요 인물로 등장한다.

소설의 초반부는 위장취업한 지식인 활동가인 흥기가 비공개 조직인 ‘동지회’를 건설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흥기는 ‘동지회’를 기반으로 대영철강에서의 민주노조건설을 제안하고 자신은 대영철강을 퇴사한다. 흥기가 퇴사한 이유는 예전에 활동하다 ‘뿔뿔이 흩어진 운동가를 조직하기 위한 것’에 있기도 했다. 그리고 성장한 현장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그 과정을 통해 주체적 계급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흥기의 위장취업과정은 1980년대 후반 지식인 활동가에게 주어진 규정화된 전형이다. 이러한 외형적 지식인 활동가의 모습은 작품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외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인 활동가의 내적 갈등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경제적 조건이 다른 지식인 활동가가 노동자 계급의 일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식인 활동가는 자신의 출신 계급으로 인한 갈등과 노동자를 선도하면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파업』에서 흥기의 내적 갈등은 미약하거나 현실 조건과 괴리되어 관념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책 많네요? 형은 좋겠어요. 집도 있고 책도 많고. 노동자들은 평생 가도 이런 생활은 꿈도 못 꿀 거예요. 허긴 나도 장남만 됐으면 이보다 더 나왔겠지. 만 막내인데다가 집안에서도 빨갱이로 찍혀서 별 볼일 없어요.”

“이깟 집이 뭐가 대단하나? 돈벌이 없으니 얼마 못가 팔아먹게 될 건데. 자 정동지! 이리와 앉아 술이나 마시자고.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한 번 부를려고 했었지. - 생략 - ” (p.134)

홍기와 정기준이 운동 노선 갈등 후 정기준이 홍기의 집으로 찾아와서 두 지식인 활동가가 대화하는 장면이다. 두 지식인 활동가의 일상적 삶의 조건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홍기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집이 있고 방한 칸은 세를 놓았다. 아내는 번역 일을 한다. 정기준은 운동만 하지 않았으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이 두 지식인 활동가의 역사적 가족의 삶의 조건은 김동연 부부의 꿈이 전세방을 마련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경제적 조건이다. 더군다나 홍기는 “이깟 집이 뭐가 대단하나?”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은 현장 노동자는 해고 후 일상적 삶을 단절 시키지만 지식인 활동가는 퇴사 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일상적 삶을 제공해 준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홍기가 이러한 현장 노동자와 자신의 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인 활동가의 인식은 선형적 지식을 통해 노동자 계급을 이해할 뿐 홍기 자신을 노동자 계급이 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두 지식인 활동가의 모습은 작품에서 현장 노동자와 괴리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홍기와 정기준은 ‘동지회’ 모임에서 둘만의 논쟁을 한다. 정세 판단이나 활동 방향에 대한 절대적 위치를 갖고 논쟁을 한다. 그들은 현장노동자가 경험하지 못한 또다른 시공간인 지식과 활동가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는 존재로 비춰진다. 그래서 현장노동자에게 지식인 활동가는 절대적 지위를 갖게 되고 현장노동자는 수동적으로 그들의 논쟁을 지켜

만 볼 뿐이다. 노동현장과 노동자 계급에 대한 지식인 활동가의 내적 갈등이 형상화되지 않고 작가의 개입에 의해 지식인 활동가에 대한 관념적 묘사만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 이야기는 풍부하게 이해되지 않고 경직되고 도식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파업』을 내용 중심으로 나누면 초반은 흥기의 위장취업과 동지회 조직 건설, 중반은 해고 투쟁, 중반은 파업 투쟁이다. 중심인물로 나누면 전반부는 흥기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 활동가의 실천 투쟁이고 후반부는 김동연을 중심으로 한 현장 노동자의 주체적 민주노조건설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서사는 내용 중심과 인물 중심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파업』에서 내용상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주노조건설 투쟁과정이다. 지식인 활동가에 의해 계급적 인식을 각성한 노동자 집단이 주체적으로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핵심적 인물은 현장 노동자 집단 중에서 선진적 인물로 성장하여 민주노조위원장이 된 김동연이라고 볼 수 있다. 김동연의 계급적 성장이야기는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노동자로 살아간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거나, 반공주의에 포섭되어 빨갱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위해 가장 산업재해가 많은 대영철강으로 이직하기도 하고 구사대의 폭력으로 노동투쟁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런 그가 첫 연대투쟁으로 거리로 나가 최루탄을 경험하고 ‘동지회’활동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해고 투쟁과 파업 투쟁을 승리하면서 민주노도위원장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파업』에는 또 다른 서사인 지식인 활동가인 흥기의 노동 현장 투쟁이야기가 있다. 작품의 첫 장면이 흥기의 대영철강 위장취업 장면이라면 마지막 장면은 교도소에 있는 흥기가 김동연이 보낸 편지를 읽는 장면으로 끝난다. 지식인 활동가가 서사에 표면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듯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첫 장면과 마지

막 장면을 통해 작품 전체의 서사에 개입한다. 『파업』을 지식인 활동가인 홍기의 노력으로 미성숙 노동자들을 선진노동자로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고 결국 민주노조를 건설하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¹⁷⁾

그러나 소설의 전반부는 홍기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중심 사건인 파업투쟁에 이미 퇴사와 구속된 홍기는 참여하지 못하고 관찰자로 남는다. 그리고 김동연은 내적 갈등과 극복을 통해 계급성을 인식하고 민주노조건설을 위해 파업 투쟁을 주체적으로 전개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역동적이고 유동적 주체인 김동연을 핵심적 중심인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작품에 형상화된 서사는 핵심적 중심인물이 불분명 할 정도로 서사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텍스트에는 여러 서사가 중첩될 수는 있지만 중심적 인물을 통해 텍스트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중심 서사가 필요하다. 『파업』은 내용 중심의 서사와 인물 중심의 서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내용 중심으로 전개되는 텍스트 전체의 서사에 인물 중심의 서사인 지식인 활동가 중심의 서사가 도식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업』의 총체성의 미약함은 작가의 개입으로 텍스트에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과 사건의 유기적 전개에 의해 표현되지 않고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텍스트의 총체성을 미약하게 만들었다. 그 방식은 텍스트에서 사건 상황에 대한 작가의 직접적 설명, 지식인 활동가에 대한 관념적 묘사, 서사 결합의 도식성으로 나타났다.

17) 임규찬은 학생출신으로 위장 취업한 홍기를 중심인물로 보고 있다. “『파업』은 홍기라는 선진적 노동운동가의 의식이 작품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다”(임규찬, 앞의 글, p.596).

3. 상징질서와 인물의 의미 관계

노동소설의 대립서사는 단순한 소재적 차원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대립이 아니다.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상징질서를 규율화하고 주체들이 무의식적으로 습속하는 모순된 현실에 대한 저항이자 대립이다. 상징질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모순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벌써 상징질서 내부에 동일시된 저항 주체를 향한 내적 저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노동소설에서 대립과 저항의 대상은 이미 벌써 상징화되어 보편적 질서를 형성한 현실이다. 노동소설은 상징질서의 모순된 징후를 극복, 변혁하여 새로운 시공간을 상상하는 인물, 사건의 갈등 양상을 형상화 한 것이다. 즉,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유토피아 충동”¹⁸⁾, ‘유토피아 지향성’¹⁹⁾을 형상화하고 있다. 노동소설은 대안적 체제, 새로운 상징질서를 꿈꾸는 변혁적 상상인 것이다. 이러한 노동소설의 변혁성과 유토피아 지향성은 중심인물이 지향하는 세계에 의해 나타난다. 특히 중심인물과 지향점이 다른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물들의 주체성의 충돌 양상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인물의 주체성은 상징질서와의 관계에서 표면화된다. 주체는 상징질서의 상징적 기표에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예속되어 상징화된 상징적 주체이다. 그리고 상징화되지 않아 기표로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적 주체도

18) 하정일, 앞의 책, p.27.

하정일은 유토피아 충동에 대해 “대안적 체제의 탐색은 어떤 정형화된 이데올로기에 귀속되지 않고 항상 유토피아적 충동으로 남아 있다. 이 유토피아적 충동은 현실의 비극성을 최고조로 고양시키는 동시에 저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이중적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19) 김복순, 앞의 책, p.119.

김복순은 “노동/자본의 모순이 핵심적 모순관계인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노동소설은 필연적으로 유토피아 지향성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

존재한다. 이러한 무의식 주체는 상징질서와 관계하지만 의식되지 않는 존재이다. 이러한 무의식 주체의 존재로 인해 상징질서는 절대화될 수 없고 새로운 상징질서로 변화 가능한 유동체인 것이다.²⁰⁾ 이처럼 인물의 주체성은 주체를 포함하고 있는 상징질서와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렇게 형성된 주체성이 인물의 의미이다.

『파업』의 인물들은 상징질서와의 관계를 통해 주체의 의미를 형성한다. 그리고 의미화 된 주체들은 상징질서를 통해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상징질서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중심인물의 의미 관계는 궁극적으로 『파업』이 지향하는 새로운 상징질서를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파업』이 형상화한 상징질서의 총체성²¹⁾과 관련될 것이다.

앞에서 살폈듯 『파업』의 상징질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 경제성장주의, 군부독재파시즘이었다. 이러한 상징질서에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인물들은 서로 타자적 존재로 관계한다.

상징질서를 절대화하는 자본가 계급인 장상대와 상징질서에 상징화되지 않고 상상적으로 초월하는 노동자 계급인 김진영, 그리고 상징질서를 현실적으로 전복하는 노동자 계급인 김동연이다.

장상대, 김진영, 김동연의 관계는 상징질서를 대상으로 서로 대립적이면

20) 주체가 보편적 실체 속의 규열로서 출현하는 주체와 실체의 이 역설적 관계는 프로이트-라캉적 실체라는 정확한 의미에서의 ‘사라지는 매개자’-즉, 비록 어디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우리 경험으로 접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요소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구성되고 전제되어야만 하는 어떤 요소의 구조-로서의 주체 개념에 달려 있다(S. 지젝,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칸트, 헤겔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 이성민(옮김), 출판b, 2007, p.66).

21) ‘누빔’은 총체화를 수행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자유롭게 부유하는 이데올로기의 요소들을 고정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누빔을 통해 그 요소들은 의미의 구조화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된다(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옮김), 인간사랑, 2002, p.156).

서 부정성과 순종성이 공존하는 관계이다.

1) 상징질서의 과잉적 절대성-억압과 파괴

1980년대 후반은 상징질서의 기표인 반공주의, 경제성장주의, 군부독재 파시즘이 현실을 표상하고 구성한다.

그의 머리 위 유리창에는 ‘좌경세력 척결하여 민주사회 수호하자’는 표어가 크게 써 붙여 있었고, 옆에는 철판으로 만든 공원모집공고가 걸렸는데 일 년 내내 붙어 있었던 듯 페인트 색깔이 바래고 군데군데 벗겨져 녹이 드러나 보였다.(p.9)

홍기가 위장취업을 하기 위해 대영철강을 찾는 장면에서 정문 경비실을 묘사한 장면이다. 1980년대 사회의 지배적 상징성을 보여준다. 반공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현실에 발현되는 흔적이다. 국가의 기본적 지향점은 표어로 상징되어 일상의 곳곳에서 주체에게 주입된다. 자본의 규칙이 정당화된 일상 속에서 주체는 순종적 노동자가 되어 일 년 내내 일자리를 찾아 공단을 해매고 돌아다닌다. 국가와 일상을 지배하는 상징은 거부할 수 없는 모습으로 현실에 발현되어 노동 주체를 고정시키고 기계적인 순종자로 만든다.

이러한 상징질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상징적으로 동일시²²⁾하는 인물이 장상대이다. 장상대는 상징질서의 권력적 지배 속성을 절대화하여 과잉적으로 현실에 표출한다. 그 표출 방식은 과잉적 억압과 법질서의 파괴이다.

22) “I(A)는 상징적인 동일시를 나타낸다. 그것은 주체가 상징적 질서인 큰 타자 속의 어떤 기표적인 특질 (I)과 동일시함을 나타낸다.”(위의 책, p.156).

자본가 계급인 장상대는 상징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장상대는 이북의 토지개혁에서 지주의 아들이어서 월남한 인물이다. 이승만 자유당 시절과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에서 성장한 자본가로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와 자본의 성장주의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장상대, 그가 대영제국을 세운 것은 자유당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다. 그는 이북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토지개혁으로 광활한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빼앗긴 지주의 아들이었다. 공산주의 때문에 모든 부와 권력을 잃은 그의 집안은 6·25전쟁을 틈타 월남하였고 그는 월남민으로 구성된 백골사단에 들어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장교로 근무하였다. 그때의 인연으로 반공 제일을 부르짖으며 무한권력을 행사한 자유당정권의 요로에 인맥을 맺어 놓은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양키들의 원조물자가 쏟아져 들어올 때 다른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공짜물건을 받아다 멋대로 값을 불러 팔아먹는 때 부자의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대영이 제대로 성장하게 된 것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였다. 장상대는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헌납하는 조건으로 엄청난 돈을 거의 무이자로 융자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대영그룹을 세울 수 있었다.(pp.186-187)

장상대의 개인사적 성장 배경에서 나타나는 그는 남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태동과 논리를 같이 하고 있다.

장상대는 박정희가 죽는 날 진심으로 슬퍼하고 박정희를 독재자라 욕해도 그만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일어나려면 남의 돈을 빌려 기업을 세우고 대신에 이자만큼을 노동자 임금에서 줄여 보충하는 것은 당연하고 강력한 독재로서 노동자의 불만을 누르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박정희를 비난하는 놈들은 한국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빨갱이’로 보았다. 이처럼 장상대는 1980년대 상징질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억압성과 재생산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장상대는 큰 타자인 상징질서와 동일시되는 주체이면서 그 논리를

재생산하는 주체이다.

상징적 동일시를 절대화한 장상대는 상징질서의 불완전성을 인식할 수 없는 주체이다. 결국 상징질서의 과잉적 억압성까지 절대화하여 반보편적이고 반윤리적 주체가 된다. 그러한 주체의 행위는 상징질서의 구조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억압적 국가장치인 법의 질서를 넘어 그 법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반윤리적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상징질서가 현실에 규정적으로 작동하는 곳은 국가적 제도장치들이다. 특히 법은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현실을 규율하고 규범적으로 질서화한다.

과장은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주고 옆의 책상에 앉아 쓰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과 노동시간관은 비워 두라고 했다.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써준다는 것이었다. ‘다음 사항을 위반 했을 때는 해고되어도 법적 소송을 걸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서약서는 12개월 모두가 근로자를 선동했을 때, 서명운동을 했을 때, 상사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등 쟁의에 관한 것들이었다.(p.11)

흥기가 대영철강에 취업을 하면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를 작성하는 장면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근로기준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상대는 대영철강에 불법적으로 무노조를 주장하고 민주노조의 설립신 중간에 개입하여 구청에 압력을 넣어 어용노조를 설립한다. 경찰, 치안본부, 안기부, 검찰, 등 모든 기관에 로비를 하여 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자본 재생산을 유지하려 했다. 이러한 장상대의 법질서 파괴는 상징질서에 동일시되는 주체를 넘어 상징계의 억압성과 파괴성을 절대화하는 주체인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에게는 절대화된 상징질서의 과잉적 억압과 파괴된 법질서에 복종과 순응을 강요한다.

2) 상징질서의 상상적 초월성-죽음

지배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상징질서를 통해 파악된 현실은 구체적 개인들에게는 사실상 현실 자체 또는 지향하는 현실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상징질서를 유지하는 지배이데올로기는 사회를 조화로운 구조로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꿈이 현재 자신들이 살아 가고 있는 조화로운 사회에서 이루어지길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현실에서 이루어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징질서는 그들이 상상하고 꿈 꾸었던 것 같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징질서는 결핍되어 있는 비전체이다.²³⁾

이러한 비전체인 상징질서와 주체와의 관계를 지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큰 타자’ 속에서의 소외 다음에는 큰 타자로부터의 분리가 이어진다. 주체가 큰 타자는 그 자체가 정합적이지 않으며, 순전히 잠재적인 [가상적인] 것이며, 빗금 쳐져 있으며, 물(物)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자마자 분리가 이어진다. -그리고 판타지는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이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즉 큰 타자의 정합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이다.²⁴⁾

상징질서에서 소외된 주체는 분리를 시도한다. 그리고 그 불완전하다고 간파한 주체는 그 상징질서의 완결을 시도하거나 이질적으로 새로운 상징

23) “실재는 상징적 질서와 현실 사이의 외적 대립이 상징적인 것 자체에 내재적인 것이 되어 내부로부터 그것을 훼손하는 지점이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의 비전체이다. 실재가 존재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자신의 외적 실재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 완전히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재(현실)가 존재하는 것은 상징체계가 비정합적이며,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S. 지젝, 『라캉 카페』, 조형준(옮김), 새물결, 2013, p.1140).

24) S. 지젝, 『헤겔 레스토랑』, 조형준(옮김), 새물결, 2013, p.605.

질서를 상상하기도 한다.²⁵⁾

『파업』에서 지배이데올로기를 상징화한 자본가 계급의 억압과 파괴에 의해 소외되고 분리된 주체는 노동자 계급이다.²⁶⁾

상징질서의 불완전성과 파괴적 현상은 주체에게 상징계와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상징질서에 의해 동일시되지 않는 경험을 갖게 한다. 이러한 지배이데올로기 불완전성은 그 상징질서의 억압성에 의해 발생하는 노동자 계급의 소외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²⁷⁾ 이러한 소외가 발생하는 상징질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언제나 노동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도 못한다. 그래서 노동 주체는 항상 욕망의 결핍 상태이다. 주체는 이러한 상징질서의 불완전성에 대한 욕망이 아닌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욕망한다. 만약 상징질서가 완벽하고 진실 된 대상이라면 주체에게 결핍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욕망할 필요도 없다. 그러

25) 지젝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증상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증상’은 그 자신의 보편적인 토대를 뒤집는 어떤 특별한 요소이며, 그 자신의 속을 전복시키는 종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비판’을 마르크스의 기본 절치는 이미 ‘증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주어진 이데올로기의 장에 이질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장을 완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결렬의 지점을 탐색하는 데 있다(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역), 인간사랑, 2002, p.49).

26) “라캉은 증상을 ‘억압된 것의 회’로서 설명”한다(위의 책, p.103).

“증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수한, ‘병리적인’, 기표적인 형성물, 향락의 매듭, 해석과 소통에 저항하는 관성적인 오점, 담화의 회로 속에, 사회적인 유대의 네트워크 속에 포함될 수 없는 얼룩,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네트워크를 가능케 하는 실정적인 조건, 이제 라캉에게 있어 왜 여자가 남자의 증상인지가 분명해진다.”(위의 책, p.136).

27) 지젝은 상징계와 노동자 계급의 소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체성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 자체를 전복시킨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현존하는 사회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요소는 물론 프롤레타리아이다. 그것은 ‘이성 자체의 비이성’(마르크스)이며, 현존하는 사회질서 속에서 구현된 이성이 자신의 비이성을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설명한다(위의 책, p.51).

나 상징계와 주체는 언제나 변증법적으로 변화하는 열린 구조이다.

『과업』에서 이러한 상징질서의 불완전성과 억압, 파괴로 인한 소외와 분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인물이 김진영이다. 그는 불완전하고 파괴적이며 비합리적인 상징질서를 대면한다.

김진영은 특하면 술 먹고 싸움질만 하던 과거를 얘기하면서 해고되고 첫날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하다가 폭력 전과 4범이라는 것이 다른 동료들에게 알려지자 부끄러워하는 활달하며 비각성된 노동자였다. 그 후 홍기와의 ‘동지회’ 활동과 해고자 투쟁 속에서 구사대의 폭력과 권력 기관의 비합리성과 자본가의 파괴성을 경험하면서 상징질서의 불완전성을 대면하게 된다. 상징질서의 파괴성으로 인해 민주노조건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자 상징계의 암흑적인 벽에 갇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김진영이 회사 정문에서 마지막 복직투쟁을 하면서 분신자살 하는 현장에서 김기준이 검거되고 연행된다. 이처럼 회사의 폭력은 단순한 회사와 노동자 간에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지배적 제도와 노동자 집단 간에 발생한다. 국가의 공권력은 더 이상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평등한 법 집행 기관이 아닌 것이다. 결국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욕망한다. 상징질서의 폭력적 파괴가 이루어지는 구사대의 폭력 현장에서 분신자살한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정문 맞은편 3층 상가 옥상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3층을 향했다. 파란 하늘을 등지고 곳곳이 선 깡마른 모습이 조각처럼 눈에 선명히 들어왔다. 온 몸에 덮여쓴 석유가 머리칼과 옷가지로 푹푹 흘러내리고 있었다. 비장한 음성이 찌렁찌렁 들려왔다.

“구사대는 물러가라! 물러가지 않으면 분신하겠다!”

올려다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회사 안에 들어갔던 노동자들도 철문가로 몰려 나왔다. 제강과장이 욕설을 퍼부었다.

“미친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다른 놈들도 위에 대고 소리쳤다.

“죽을래면 죽어라! 죽을 용기나 있나?”

“얼른 죽어, 이 빨갱이 새끼!”

제강과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올라가서 끌어 내!”

구사대가 우르르 건물로 몰려갔다. 진영은 날카롭게 외쳤다.

“올라 오지마! 올라오면 분신하다!”

그러나 구사대는 그의 말은 안중에도 없었다. 동석이 미친 듯 소리쳤다.

“올라 가지마! 사람 죽는단 말야!”

그러자 남아 있던 구사대 하나가 가슴을 내질렀다.

“시끄러 이 새끼! 너희 같은 빨갱이들은 다 죽어야 돼!”

-중략-

구사대는 3층까지 올라가 잠겨진 옥상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쿵쿵 소리가 아래까지 들려왔다. 그러나 진영은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이미 불붙은 유인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어용노조 물리치고 민주노조 쟁취하자!”

석유에 젖은 그의 뺨에는 눈썹에서 나온 피와 눈물이 엉켜 뜨거운 피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대영제강 전체가 흐릿하게 내려다 보였다. 그는 반쯤 타들어간 종이를 몸에 갖다 댔다. 불꽃이 옷깃에 옮겨 붙어 시뻘건 불길 이 끄으름을 날리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략-

노동자들이 미친 듯이 외쳤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외침이었다. 마침내 노동자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뭉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진영은 이미 아무소리도 듣고 있지 못했다. 그는 불꽃이 목을 타고 들어오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절규했다.

“노-혁-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리고 3층 아래로 훌쩍 뛰었다. 커다란 불덩이가 검은 끄으름을 날리며 곧바로 떨어졌다. 팍! 머리 깨지는 소리가 소름끼치게 들려 왔다. 시멘트 바닥

에 사지를 뺀고 쓰러진 그는 더 이상 꿈쩍도 하지 않았다.(pp.240-241)

김진영이 분신하면서 외쳤던 구호에서 새로운 이상향을 알 수 있다.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어용노조가 아닌 노조의 본질적 존재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노조를 건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상을 꿈꾼 것이다.

김진영의 죽음은 현실적으로 보면 반인륜적이고 범법행위이다. 김진영의 죽음은 라깡이 『안티고네』를 분석하면서 안티고네가 법질서를 어기면서 오빠의 매장을 강행한 것과 같은 윤리적 행위인 것이다. 라깡은 죽음을 무릎 쓰고 오빠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주체의 집요한 욕망으로 보았다. 결국 이것은 불완전한 상징계 속에서의 욕망의 비극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주체는 상징계의 동일시의 범위를 넘어 존재하는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김진영은 더 이상 상징계에 존재하는 주체가 아닌 윤리적 주체인 것이다.

죽은 김진영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더 이상 상징계에 존재하는 주체가 아니다. 죽음의 의미는 죽음을 지켜 본 타자의 시각에 의해 재정립된다. 남은 주체들에게 김진영은 새로운 세계로 위치 지워져야 하는 존재, 즉 승화의 대상이 된다. 남은 주체들에 의해 애도와 승화의 절차를 통해 김진영은 상상의 타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3) 상징질서의 실재적 현실성-파업

살아남아 현실에 존재하는 노동자 계급은 상징질서에 동일화 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상징질서를 끝없이 상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 상징질서의 억압과 파괴에 저항하면서 '상징적인 구조를 뒤틀어 버린다.'²⁸⁾ 지젝은 상징질서의 뒤틀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라캉의 실재가 지니고 있는 역설은 그것이(현실에서 일어난다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존재하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어떤 구조적인 인과율을 실행한다. 그것은 주체들의 상징적인 현실 내에서 일련의 효과들을 산출할 수 있다. 동일한 모체에 근거를 둔 다수의 농담들이 그것을 예증하고 있다.²⁸⁾

지젝은 라캉의 실재를 설명하면서 ‘존재하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실체, 어떤 구조적인 인과율을 실행, 주체들의 상징적인 현실 내에서 일련의 효과들을 산출’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비가시적이면서도 가시적인 것, 상징적이지 않으면서 상징적인 것이 존재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재의 의미는 노동자 계급이 현실적 투쟁에서 상징화 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상징을 상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상징 질서에 일방적으로 호명되지 않으면서 상징계에 존재할 수 있는 또다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파업』에서 상징질서의 구조를 뒤트는 실재적 주체는 김동연이다. 중심 인물인 김동연은 단란한 가정을 꿈꾸는 보편적 노동자 계급으로 비공개 노동자 모임인 ‘동지회’ 활동을 하면서 선진 노동자로 성장한다. 김진영이 꿈꾸던 상상의 새로운 상징질서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인물이다.

김진영의 죽음은 노동소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죽음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김진영의 분신은 대영철강의 민주노조건설 과정에서 노동자의 집단적 실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 김진영의 죽음은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윤리적 반성과 상징적 타자에 대한 분노로 연결된다. 이러한 개별 노동자의 각성은 계급의 집단적 실천으로 확장된다. 상상적 타자로

28) “실재는 상징적인 구조의 뒤틀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후에 축조되어야만 하는 실체이다.”(위의 책, p.275).

29) 위의 책, pp.275-276.

존재했던 김진영의 죽음이 현실에서 재현되고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 죽음의 반복이 아니라 죽음에 의해 기표화된 윤리적 행위의 반복, 윤리적 주체의 재현인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행위의 반복과 윤리적 주체의 재현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파업이다.

파업현장은 상징계의 비합리적이고 억압적 주체인 자본가 계급과 반복되는 윤리적 주체인 노동자 계급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불안정한 상징계의 총체적 유기체이다. 그래서 상징계의 불안정한 주체들의 변증법 갈등이 최고점에 이르는 곳이다. 그리고 실재적 주체들의 유토피아 지향적인 새로운 상징질서의 가능성이 진행된다.

김동연은 노조위원장으로서는 비굴하게 구사대의 폭력을 피해 도망가서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던 자신의 행위를 김진영의 죽음 이후 반성한다. 그리고 김진영의 죽음을 지켜본 살아남은 자로 상상적 타자로 존재했던 윤리적 주체를 상징질서로 불러 들여 반복한다.

“그런데 내가,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에 몸을 사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 동료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끈질기게 가슴을 울렁여오는 설움에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한 동안 천장만 올려다보았다. 기어이 눈물이 핑 돌았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뺏기고 짓밟히고, 그러고도 개처럼 비굴하게 살아야만 하는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제강과 여러분,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동료가 죽은 이 마당에 우리가 더 이상 무얼 망설여야 합니까?”(pp.252-253)

김동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민주노조건설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이러한 반성은 김동연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이상섭은 대학 출신 흥기, 기준에 대한 불신과 해고자 투쟁에서 빠졌던 자신의 패배주의를 반성한다. 그리고 김영춘도 자신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배우고 같이 싸웠으면 김진영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손영원은 우리들 모두가 죄인이며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고 한다. 이러한 반성적 윤리적 주체는 파업 투쟁에 동참하여 승리로 이끈다. 이처럼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 윤리적 행위가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윤리적 행위는 새로운 상징계, 즉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인간이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주체의 역동적인 실천 행위이다. 윤리적 행위와 윤리적 주체의 반복과 재현은 불완전한 상징계를 전복하는 것으로 새로운 상상적 타자를 상징적으로 동일시하여 새로운 상징질서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노동소설에서 파업 모티브는 이러한 혁명적 실천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자 공간이다.

이상에서 『파업』의 상징질서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인물의 의미 관계를 알아보았다. 『파업』의 인물들은 상징질서와의 관계를 통해 주체의 의미를 형성했으며 그 의미화된 주체들은 상징질서를 통해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다. 상징질서를 절대화한 자본가 계급인 장상대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과잉적 억압과 법질서 파괴로 형상화되었고 상징질서에 상징화되지 않고 상상적으로 초월하는 노동자 계급인 김진영은 윤리적 행위인 죽음으로 윤리적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상징질서를 현실적으로 전복하는 노동자 계급인 김동연은 윤리적 행위의 반복인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와 같은 『파업』의 인물의 의미 관계는 상징질서의 대립적 계급관계인 노동현실과 새로운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계급적 노동주체를 총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1980년대 후반 노동소설의 대표적 작품인 안재성 『파업』의 내포적 총체성의 결핍을 규명하고 인물의 의미 관계를 밝혔다.

『파업』의 내포적 총체성의 결핍은 작가의 개입으로 텍스트에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과 사건의 유기적 전개에 의해 표현되지 않고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텍스트의 총체성을 미약하게 만들었다. 그 방식은 텍스트에서 사건 상황에 대한 작가의 직접적 설명, 지식인 활동가에 대한 관념적 묘사, 서사 결합의 도식성으로 나타났다.

『파업』의 상징질서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인물의 의미 관계는 장상대, 김진영, 김동연을 통해 형상화되었다. 상징질서를 절대화한 자본가 계급인 장상대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과잉적 억압과 법질서 파괴로 형상화되었고 상징질서에 상징화되지 않고 상상적으로 초월하는 노동자 계급인 김진영은 윤리적 행위인 죽음으로 윤리적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상징질서를 현실적으로 전복하는 노동자 계급인 김동연은 윤리적 행위를 반복하는 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파업』은 작가의 직접적 개입으로 내포적 총체성이 결핍되는 한계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의미 관계를 통해 당대 사회현실의 대립적 계급관계와 새로운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계급적 노동주체를 총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호, 『1980년대 노동소설과 근대성의 딜레마-주체의 낙관적 의지와 배타적 신념』,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 2004.
- 고영직, 『이론신앙을 넘어, 사실의 재인식으로-1080년대 민중, 노동문학론에 관한 단상』, 『실천문학』 겨울호, 실천문학사, 2005, pp.76-87.
- 김동춘,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역사비평사, 1995.
- 김복순, 『노동자의식의 낭만성과 비장미의 ‘저항의 시학’-70년대 노동소설론』,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 2000.
- 박규준, 『한국 현대 노동소설 연구-이데올로기와 성장서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안재성, 『파업』, 세계, 1989.
- 오연희, 『노동소설의 새로운 모색』, 『어문연구』제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pp.297-317.
- 오창은, 『1980년대 노동소설에 대한 일고찰』, 『어문연구』제51권, 어문연구학회, 2006, pp.137-173.
- 이병훈, 『노동 장편소설의 최근 변모와 성과가 지니는 현재적 의미』, 『한길문학』 1991년 여름호, 한길사, 1991.
- 임규찬, 『1980년대 노동운동의 소설적 모형』, 『동아출판사 소설문학 대계 95』, 동아출판사, 1995, pp.594-601.
- 조정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종말 이후의 노동문학』, 『실천문학』 봄호, 실천문학사, 2000, pp.253-272.
- 하정일, 『저항의 서사와 대안적 근대의 모색-산업화 시대의 민족문학』, 『1970년대 문학연구』, 민족문학사 연구소, 소명, 2000.
- 홍승용, 『루카치 리얼리즘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G. 루카치,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홍승용(옮김), 실천문학사, 1985.
-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수련(옮김), 인간사랑, 2002.
- _____,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칸트, 헤겔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 이성민(옮김), 출판b, 2007.
- _____, 『라캉 카페』, 조형준(옮김), 새물결, 2013.

S. 지젝, 『헤겔 레스토랑』, 조형준(옮김), 새물결, 2013.

Georg Lukács Werke. Bd.4. Neuwied-Berlin 1971.(Probleme des Realismus 1.
Essays über Realismus(홍승용, 『루카치 리얼리즘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2, p.105).

Abstract

A Study on An Jae-Seong's *A Strike*

- Focused on the lack of Intensive Totality and
the Meaning of Character's Relationship -

Park, Gyu-Jun

This essay investigates the lack of intensive totality and the meaning of character's relationship described in An Jae-Seong's *A Strike* which is one of the major labor novels in the late 1980s.

The work is absent or lack of the totality because the author's voice is directly expressed by the writer's intervention in the text. In the work his voice is represented in the form of his direct explanation for the incident, the abstract description of the intellectual activist and the schematic narrative composition.

Characters such as Chang Sang-Dae, Kim Jean-Young and Kim Dong-Yeon represent the meaning of character's relationship made by the symbolic order of the work. Chang Sang-Dae who is the capitalist class absolutizing symbolic order is described as excessive oppression of the dominant ideology and destruction of law system. Kim Jean-Young who is the labor class not included in the symbolic order but imaginarily transcending it becomes an ethnical subject through the death of the ethnic behavior. Finally, Kim Dong-Yeon who is the labor class subverting the symbolic order leads the strike repeating ethnical actions to victory.

The meaning of character's relationship in *A Strike* depicted the hostile class relationship in those days and the reality of labor heading toward a new utopia.

Key Word : An Jae-Seong, *A Strike*, totality, character's meaning, the absolute, law system, ethnical behavior, reality, strike

박규준

소속 :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10-6545-3610

전자우편 : bark9@nate.com

이 논문은 2014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4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